



환경 생각한 동아제약 구강청결제 가그린 어린이용 제품 라벨 쉽게 뗄 수 있게 리뉴얼

동아제약 동아제약은 어린이용 가그린을 친환경적으로 리뉴얼해 새로 출시했다. 기존 제품보다 쉽게 라벨을 뗄 수 있게 만들어 재활용이 용이하다. '뜯는 곳'을 표기해 분리수거 때 라벨을 쉽게 제거하여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9종의 멸종위기동물 디자인을 적용하고 하단에 멸종위기등급마크를 기재해 사용자에게 멸종위기동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어린이용 가그린 리뉴얼은 지구환경과 서식지 파괴로 사라져가는 멸종위기동물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동아제약은 가그린 판매수의 급 일부를 기부해 멸종위기종 보호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동아제약은 이에 앞서 가그린의 기존 유색용기를 재활용이 용이한 무색 투명 용기로 바꾸기도 했다. 동아제약은 1982년 국내 최초로 구강청결제인 가그린을 출시했고, 2009년에는 어린이용 가그린을 선보였다. 동아제약은 타르색소에 민감해지는 소비자를 생각해 가그린에 타르색소를 넣지 않고 있다. 2015년부터는 가그린의 알코올(에탄올) 함유량을 제품 외부에 표시했다. 이외에 어린이 직접 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에서 '동아제약 가그린 치과'를 열어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구강관리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SK텔레콤 “올해 AI컴퍼니로 전환”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사진)은 25일 서울 을지로 T타워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올해 회사의 변화 방향으로 'AI 컴퍼니로 전환'과 '글로벌 수준 거버넌스(지배구조) 확립'을 제시했다. 박 사장은 “올해를 기점으로 큰 방향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명실상부한 AI 컴퍼니로 전환할 것이다”고 밝혔다. AI를 중심으로 핵심 사업인 이동통신(MNO)을 비롯한 미디어, 보안, 커머스 등 정보통신기술(ICT) 패밀리의 상품·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이를 외부 제휴사로 확장한다는 설명이다.

박 사장은 또 “이해관계자들의 더 많은 인정과 지지를 얻기 위해 글로벌 수준의 거버넌스로 한 단계 진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이를 위해 정관에 기업 지배구조현장을 신설하고, 이사회 산하 위원회를 4개로 재편해 역할과 권한을 확대한다. 4대 위원회는 미래전략, 인사보상, 감사, ESG로 구성된다.

한편, 이날 주총에선 재무제표 확정, 사내이사 및 감사위원 재선임, 정관 일부 변경 등의 안건을 승인했다. 중간지주사 전환 관련 안건은 이번 주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병근 기자

KGC인삼공사, 오늘부터 '시작해봄' 프로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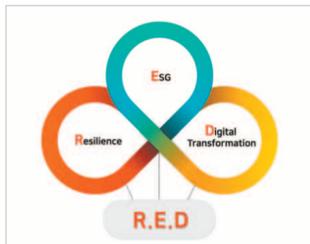


KGC인삼공사가 26일부터 4월 11일까지 '시작해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녹용농축액 함량을 증대한 천녹과 환절기 호흡기 건강을 위한 홍삼농축을 중심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천녹의 천녹정, 천녹정편, 천녹톤, 천녹W, 천녹원칙 세트, 천녹강환을 구매 시 세트 구성에 따라 천녹W를 추가 증정한다. 홍삼농축 30포와 60포 구매 시 각각 홍삼캔디후 2세트와 4세트를 증정한다. 또 정관장 제품을 15만 원 이상 구매하거나 정관장 포인트 사용 시 추첨을 통해 정관장 쿠폰을 추가 지급한다.

애경그룹, 'RED경영' 선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제 대응으로 시장 주도”

애경그룹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RED경영'을 선포했다. Resilience(회복탄력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Digital Transformation(디지털 전환)의 약자다.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백신 보급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선제적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석주 AK홀딩스 대표는 “RED경영의 핵심 트렌드 실행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선제적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사진제공 | 애경

친환경·윤리경영 등 ESG 적극 동참 주요 계열사, 'RED경영' 실행 분주 친환경·지역 상생 마케팅 등 강화

- 회복탄력성, ESG경영, 디지털 전환 실천 RED경영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지친 조직의 회복탄력성 확보 차원에서 리더들의 솔선수범과 진정성 있는 조직력을 강화한다. 투자자들과 사회적 외면을 받지 않기 위해 ESG경영에도 적극 동참한다. 친환경경영, 윤리경영, 투명경영을 추진하며 직원의 안전과 행복, 협력업체와의 상생도 모색 중이다. 또 각 사업영역 및 업무현장에서 디지털

타화를 통해 파생되는 신규사업과 효율화의 기회를 발굴해 미래를 준비한다. 모바일 근무환경 개선, 화상미팅 활성화, 스마트오피스 도입 등 일하는 방식도 최적화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2021년 사업포트폴리오 운영 및 가이드라인을 포스트 코로나 사업포트폴리오의 재무적인 연속성 확보, 개별 사업포트폴리오 기업가치 제고, 화학 및 생활용품 화장품 사업에서 성장의 기반 확보로 정했다.

- 계열사도 변화 방향 공유 주요 계열사들은 'RED경영' 실행을 위해 분주하다. 애경산업은 포스트 코

로나 시대를 대비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글로벌 영역 확장 및 국내·외 마케팅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동남아 이커머스 업체 소피와 파트너십을 맺고 6억 인구의 동남아 시장 공략에 나섰다. 글로벌 이커머스 아마존에 브랜드관을, 중국 이커머스 티몰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다.

AK플라자는 ESG경영 실천을 위해 지역 점포를 중심으로 지역과 협력할 수 있는 친환경, 상생 관련 영업 마케팅을 지속 운영하며 보냉가방 수거, 예코백과 텀블러 권장 등 고객 참여형 친환경 활동을 진행한다. 친환경 아트 페스타와

함께 산물로 큰 피해를 본 강원도에 '애경숲' 조성을 지원한다.

제주항공은 친환경프로젝트인 '플라베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중간이륙, 활주이륙, 최적고도 순항, 비행거리 단축, 착륙 후 엔진 1개 사용 등 조종방식 개선을 통해 연료 사용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정제주 환경정화 활동, 기내 친환경제품 사용,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사내 카페 모듬락, 열린의사회와 함께하는 해외 의료봉사, 보육원 영어교육, 항공안전 체험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애경그룹 지주회사인 AK홀딩스의 이석주 대표는 “RED(빨강) 색상이 색채심리적으로 열정을, 신호로는 긴박함을 나타내듯이 열정을 바탕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자칫 실행이 늦어지면 경쟁에 뒤처진다는 긴박감을 갖고 경영활동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또 “그룹의 지향점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선제적 변화 추진'으로 정한 만큼 RED경영의 핵심 트렌드 실행에 그룹 역량을 집중하자”며 “거시적 변화 추세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선제적 변화가 가능한 경영환경을 만들어 새로운 세상에 앞서가는 선도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두산중공업, 국내기업 최초 '캐스크' 수출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캐스크 5세트, 美 TMI원자력발전소에 공급

두산중공업이 국내 기업 최초로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인 캐스크(VCC, Vertical Concrete Cask)를 해외 수출하는 데 성공했다.

두산중공업은 캐스크 5세트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섬에 위치한 TMI 원자력발전소에 최근 공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캐스크는 원자로에서 연소를 마친 뒤 배출된 사용후핵연료를 운반하고 저장하는데 사용하는 특수 용기다. 수십여 다발의 핵연료를 지지하는 내부구조물(Basket), 방사성 물질의 외부 누출 방지를 위한 캐니스터(Canister)

er), 방사선을 차폐하는 특수 차폐소재, 구조적 안전성을 보충하기 위한 외형 구조물 등으로 이뤄져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방사선과 열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특수 설계와 고도의 제작기술을 필요로 한다. 두산중공업이 수출한 캐스크는 높이 약 5.7m, 직경 3.4m, 무게는 100톤이 넘는다. 캐스크 금액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나기용 두산중공업 원자력BG장은 “미국 NAC(Nuclear Assurance Corporation)사와 사업협력을 통해 해외 캐스크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지속적인 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국내의 캐스크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두산중공업의 미국 TMI 원자력발전소용 캐스크 제작 공정 모습. 사진제공 | 두산중공업

SK(주), 이사회 권한 대폭 강화...ESG위원회 신설

대표이사 평가·중장기 전략 등 심의권한 부여

SK(주)(대표이사 장동현)가 대표이사 평가, 중장기 전략 수립 등 경영 핵심분야에 대한 심의 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한다. 회사 경영의 핵심 요소인 인사, 전략, 감사 3대 영역을 이사회와 공유해 이사회의 실질적 참여, 독립성, 전문성을 대폭 높여준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SK(주)는 이사회 산하에 인사위원회와 ESG위원회를 신설하고 대표이사·사외이사후보추천·대표이사 평가, 사내이사 보수 심의, 중장기 성장전략 검토 등 핵심 경영활동을 맡긴다고 25일 발표했다.

ESG 중 지배구조(Governance)를 더욱 업그레이드해 ESG 경영을 완성한다는 전략이다. SK(주)는 새로운 지배구조 핵심 전략을 '거버넌스 스토리(Governance Story)'로 명명하고 29일 주주총회와 30일 이사회 승인 과정을 거쳐 본격 시행한다.

SK(주) 관계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더욱 인정받는 지배구조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행복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롯데카드,뱅크샐러드 PLCC '빨대카드' 출시



롯데카드가 뱅크샐러드와 손잡고 PLCC(상업자 표시 신용카드)인 '빨대카드'(사진)를 선보인다. 지난해 뱅크샐러드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지출한 커피, 배달앱, 스트리밍, 편의점 등에 집중해 일상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을 모았다. 롯데카드는 뱅크샐러드 이용 고객의 특성에 맞춘 빨대카드 출시를 통해 뱅크샐러드 주 사용자 고객층인 2030 MZ세대 공략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측은 “빨대라는 이름처럼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남김없이 빨아먹는 즐거운 고객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4월 1일부터 뱅크샐러드 앱에서 신청 가능하며 연회비는 국내전용·해외겸용 모두 2만 원이다. 정정욱 기자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호흡기 질환 유발하는 미세먼지...“외출자제·KF80 마스크 착용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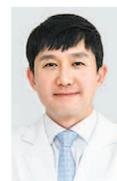
봄이면 찾아오는 불청객,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해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미세먼지와 황사에는 카드뮴, 철, 알루미늄 등 각종 중금속과 발암물질이 있어 비염과 천식, 폐렴, 축농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 아이들은 키 성장을 방해하고 학습능력이 저하될 위험도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10µg/m³ 증가할 때마다 폐질환 입원율은 2.7%, 사망률은 1.1%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와 황사가 심할 때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심해도 하루에 최소 3번은 짧은 시간이라도 실내 환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실내청소는 진공청소기보다 분무기를 뿌

리고 걸레로 닦는 방법을 추천한다. 외출했다면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과 입 등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외출할 때 콘택트렌즈 대신 안경을 착용하고, 인공눈물 등으로 눈을 씻어주는 것이 좋다. 반드시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 호흡기 질환을 예방해야 하며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셔 중금속을 배출하도록 해야 한다.

대기질이 나쁘면 알레르기 비염과 폐렴, 천식, 만성 기관지염 등이 악화되기 쉽다. 기침이 이를 이상 이어지거나 가래색이 투명하지 않고 누렇게나 푸른빛을 띠면 염증 가능성이 있어 검사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면역력이 약한 어른이나 어린이는 폐렴이 치명적이어서 기침, 가래,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을 찾아야 한다.



역삼동 이비인후과 연세코앤 최윤성 원장